

# 왜 우니?

소복이 글·그림

※ 이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초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제	그림책을 읽고 관련된 경험을 다양하게 표현하기
권장 차시	8차시
대상 학년	5·6학년
관련 주제어	감정, 공감, 이해, 표현
교육 과정 연계	(6국01-07)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지닌다. (6국02-05)매체에 따른 다양한 읽기 방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적용하며 읽는다. (6국03-05)체험한 일에 대한 감상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6국05-04)일상생활의 경험을 이야기나 극의 형식으로 표현한다. (6국05-05)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작성자	창원 풍호초등학교 박경미 선생님



## ■ 학습 목표

-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공감 놀이를 할 수 있다.
- 그림책이라는 매체에 알맞은 읽기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며 읽을 수 있다.
- 책과 관련된 경험을 감상이 드러나게 글로 쓸 수 있다.
- 책과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나 극의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눌 수 있다.

## ■ 도서 소개

평범한 일상에서 독특한 공감을 끌어내는 소북이 작가의 그림책. '왜 우니?'라는 한마디 물음에 엮인 여러 가지 눈물 에피소드가 펼쳐진다. 누구나 한 번쯤 겪을 법한 소소한 소재와 가까운 누군가를 닮은 친근한 캐릭터가 깊은 공감을 자아낸다. 나이부터 성격까지 천차만별인 이들에게 하나의 물음을 건네며 우는 마음을 바라보고 다독인다. 낙약하고 창피한 행동이 아니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 울음을 응원하는 그림책이다.

## ■ 수업 준비

이 책은 펼침면과 만화의 컷을 적절하게 사용한 그림책으로 누구나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에는 눈물에 얽힌 스물다섯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아이들은 이 책을 보면서 책 속 등장인물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한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떠올린다. 책과 관련되는 경험을 친구들과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고, 공감받으며 눈물, 울음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글, 만화, 즉흥극, 동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자신이 생각하고 느낀 것을 표현할 수 있다.

**수업 준비물** 필기구, 색칠 도구, 휴대 전화 등

## ■ 학습 과정

단계	주요 활동	차시
책 읽기 전	- "나도! 나만!" 놀이하기 - 내용 예측하기	1차시
책 읽는 중	- 소리 내어 읽기 - 인상 깊은 장면이나 구절 이야기 나누기 - 관련되는 경험 이야기 나누기 - "그랬구나!" 공감 놀이하기	2~4차시
책 읽은 후	- 그림 글자로 나타내기 - 눈물책 만들기 - 만화 일기로 표현하기 - 정지 장면으로 표현하기 - 즉흥극으로 표현하기	5~8차시

# 책 읽기 전

## 1. “나도! 나만!” 놀이하기

- 사람들의 울음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다양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울음 뒤에 숨겨진 감정을 찾아봅시다.

(예: 불안해서, 그리워서, 외로워서, 서러워서, 서운해서, 슬퍼서, 속상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고마워서, 안타까워서, 허무해서, 걱정스러워서, 위안이 되어서, 후회되어서, 기뻐서)

### [놀이 방법]

- ① 말하는 순서를 정합니다.
- ② 한 명이 일어나서 “나는 불안해서 운 적이 있어.”
- ③ 듣고 있던 친구들 가운데 같은 경험이 있는 친구가 일어나며 “나도!”를 외치고 앉습니다.  
- “나도!”라고 외칠 때에는 두 팔을 들어 O 모양을 만듭니다.
- ④ 같은 경험이 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으면,  
처음 말했던 사람은 “나만!”이라고 외치고 자리에 앉습니다.  
- “나만!”이라고 외칠 때에는 두 손으로 가슴 앞에서 X 모양을 만듭니다.
- ⑤ 같은 방법으로 한 명씩 돌아가며 말합니다.

**선생님께** 놀이가 끝나고 ‘나만!’이라고 한 친구가 그 사연을 공개할 수 있으면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합니다. “나만!”이라고 외친 친구가 놀이로 소외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살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친구들과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알고 친구들과 동질감과 연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 2. 내용 예측하기

- 앞표지를 보여 주며 책 제목과 작가 이름, 출판사를 읽어 줍니다.
- 앞표지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발견한 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 앞표지와 뒤표지를 비교해 보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찾아봅시다.
- 면지와 속표지를 보면서 이 책의 내용을 예측해 봅시다.

(예: 앞표지에서 비가 반짝반짝 빛나요.

제목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보면 하늘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주인공 옆에서 고양이가 꼬리로 우산을 들어 주고 있어요.

내가 올 때 누군가 옆에서 위로해 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뒤표지에서 비가 그쳐 가요.

주인공의 눈물도 그쳐 가요. 우산은 접혀 있어요.

주인공이 한바탕 울어서 마음이 차분해진 것 같아요.)

## 책 읽는 중

### 1. 소리 내어 읽기

- 짝과 함께 번갈아 소리 내어 읽어 봅시다.

(예: “넌 왜 우니?” “엄마가 없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있어서 울어.”)

### 2. 인상 깊은 장면이나 구절 이야기 나누기

-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을 고르고, 그 장면을 고른 까닭을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예: 엄마가 있어서 운다고 말한 아이가 기억에 남아.

집에 엄마가 없는 줄 알고 아빠랑 평소엔 못 먹었던 간식을 잔뜩 사 왔는데,

엄마가 딱 보고 내놓으라고 손을 내미는 장면이 재미있었어.

나도 엄마가 없을 때 아빠랑 라면을 끓여서 먹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생각보다 일찍 들어와서 “밥 있는데 왜 라면을 먹어?” 하고 화를 낸 적이 있어.

아빠랑 라면을 먹으면서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마음이 불편했어.)

### 3. 관련되는 경험 이야기 나누기

- 이 책에 나오는 그림을 살펴보면 우는 사람과 우는 이유, 우는 장소를 알 수 있습니다.

- 우는 이유, 우는 장소와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예: 키보드를 타다가 아이가 넘어진 장면이 기억에 남아.

왜냐하면 나도 얼마 전에 쌓아 놓은 책에 부딪혀서 발가락을 다쳤거든.

그때 눈물이 핑 돌았어.)

- 울고 싶었는데 울음을 참았던 경험이나 울음으로 감정이 해소된 경험도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예: 나도 빗속에서 울어 본 적이 있어.

갑자기 비가 온 날, 친구들은 가족들이 우산을 가져다줬는데,

나는 우산도 없고 혼자여서 빗속에서 울면서 갔어.

비 오는 날 눈물이 나니까 더 슬프더라.)

### 4. “그랬구나!” 공감 놀이하기

- 울음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의 방법입니다.

실제로 펍펍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 울면 그것을 불편해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눈물 뒤에 숨겨진 감정이나 욕구를 공감받지 못한 경험이 더러 있습니다.

울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랬구나!” 공감 놀이를 해 봅시다.

### [놀이 방법]

놀이 인원 : 4명

- ① A가 울었던 상황을 말합니다.
- ② B는 A가 말한 상황을 그대로 다시 말합니다.
- ③ C는 A의 '느낌'을 유추하여 말합니다.
- ④ D는 A의 '욕구(마음)'를 유추하여 말합니다.
- ⑤ 같은 방법으로 서로 역할을 바꾸어 말합니다.

(예)

A: 어제 엄마가 이제 고학년이니까 미술 학원을 그만두라고 하셨어.

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계속 다니고 싶다고 말했지.

그런데 내 말은 안 들어주고 엄마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야.

그래서 울었는데 말로 안 하고 운다고 혼났어.

B: 어제 엄마가 미술 학원을 그만두라고 하셨구나.

너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계속 다니고 싶다고 말했는데,

엄마가 네 말을 안 들어주고 운다고 혼도 냈구나.

C: 너는 부모님이 네 정말 좋아하는 것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속상했구나.

네가 왜 우는지 물어보지 않고 운다고 혼내서 슬펐을 것 같아.

D: 너는 부모님이 네 의견을 좀 더 존중해 줬으면 하는구나.

그리고 부모님이 네가 왜 우는지 알아보고 네 감정에 공감해 줬으면 했구나.

### 선생님께

느낌과 욕구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에는 아래의 '느낌말목록'과 '욕구목록'을 참고해 주세요.

### 느낌말목록

####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감동받은, 몽글한, 감격스런, 벅찬, 환희에 찬, 황홀한, 충만한, 고마운,  
 감사한, 즐거운, 유쾌한, 통쾌한, 은쾌한, 경이로운  
 기쁜, 반가운, 행복한, 따뜻한, 감미로운, 포근한, 푸근한  
 사랑하는, 훈훈한, 정겨운, 친근한  
 뿌듯한, 산뜻한, 만족스런, 상쾌한, 흡족한, 개운한, 후련한, 든든한, 흐뭇한  
 홀가분한, 편안한, 느긋한, 담담한, 친밀한, 친근한, 긴장이 풀리는, 차분한,  
 안심이 되는, 가벼운  
 평화로운, 누그러지는, 고요한, 여유로운, 진정되는, 잠잠해진, 평온한  
 흥미로운, 재미있는, 끌리는, 활기찬, 짜릿한, 신나는, 용기 나는, 기력이 넘치는,  
 기운이 나는, 당당한, 살아있는, 생기가 도는, 원기가 왕성한  
 자신감 있는, 힘이 솟는, 흥분된, 두근거리는, 기대에 부응, 들뜬, 희망에 찬

### NEED 욕구목록

#### 자율성

자신의 꿈, 목표,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자신의 꿈, 목표, 가치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선택할 자유

#### 신체적/생존

공기, 음식, 물, 주거, 휴식, 수면, 안전, 신체적 접촉(스킨십), 성적 표현, 따뜻함,  
 부드러움, 편안함, 돌봄을 받음, 보호받음, 애착 형성, 자유로운 움직임, 운동

#### 사회적/정서적/상호의존

주는 것, 봉사, 친밀한 관계, 유대, 소통, 연결, 배려, 존중, 상호성, 공감, 이해,  
 수용, 지지, 협력, 도움, 감사, 인정, 승인, 사랑, 애정, 관심, 호감, 우정, 가까움,  
 나눔, 소속감, 공동체, 안도, 위안, 신뢰, 확신, 예측가능성, 정서적 안전,  
 자기 보호, 일관성, 안정성

###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걱정되는, 까마득한, 암담한, 염려되는, 근심하는, 신경 쓰이는, 뒤숭숭한  
 무서운, 섬뜩한, 오싹한, 겁나는, 두려운, 진땀나는, 주눅 든, 막막한  
 불안한, 조바심 나는, 긴장한, 떨리는, 조마조마한, 초조한, 불편한, 거북한,  
 경연적은, 곤혹스러운, 멋쩍은, 쑥스러운, 괴로운, 난처한, 답답한, 갑갑한,  
 서먹한, 어색한, 찜찜한  
 슬픈, 그리운, 목이 메는, 먹먹한  
 서글픈, 서러운, 쓰라린, 울적한, 참담한, 한스러운, 비참한, 속상한  
 안타까운, 서운한, 김빠진, 애석한, 낙담한  
 섭섭한, 외로운, 고독한, 공허한, 허전한, 허탈한, 쓸쓸한, 허한  
 우울한, 무력한, 무기력한, 침울한  
 피곤한, 노곤한, 따분한, 맥 빠진, 귀찮은, 지겨운, 절망스러운, 실망스러운,  
 좌절한, 힘든  
 무료한, 지친, 심심한, 질린, 지루한  
 멍한, 혼란스러운, 놀란, 민망한, 당혹스런, 부끄러운  
 화나는, 약 오르는, 분한, 울화가 치미는, 억울한, 열 받는, 짜증나는

### 놀이/재미

즐거움, 재미, 유머, 흥

### 삶의 의미

기여, 능력, 도전, 명료함, 발견, 보람, 의미, 인생예찬(축하, 애도),  
 기념하기, 깨달음, 자극, 주관을 가짐(자신만의 견해나 사상), 중요하게 여겨짐,  
 참여, 회복, 효능감, 희망, 열정

### 진실성

정직, 진실, 성실성, 존재감, 일치, 개성, 자기존중, 비전, 꿈

### 아름다움/평화

아름다움, 평탄함, 홀가분함, 여유, 평등, 조화, 질서, 평화, 영적 교감, 영성

### 자기구현

성취, 배움, 생산, 성장, 창조성, 치유, 숙달, 전문성, 목표, 가르침, 자각,  
 자기표현, 자신감, 자기 신뢰

(출처:한국비폭력대화교육원)

## 책 읽은 후

### 1. 그림 글자로 나타내기

- '눈물', '울음', '왜 우니?' 글자를 어울리는 이미지와 색깔로 나타내어 봅시다.



### 2. 눈물책 만들기

- 각자 올렸던 경험을 눈물 모양 종이에 글로 표현하고, 우리 반 눈물책을 만들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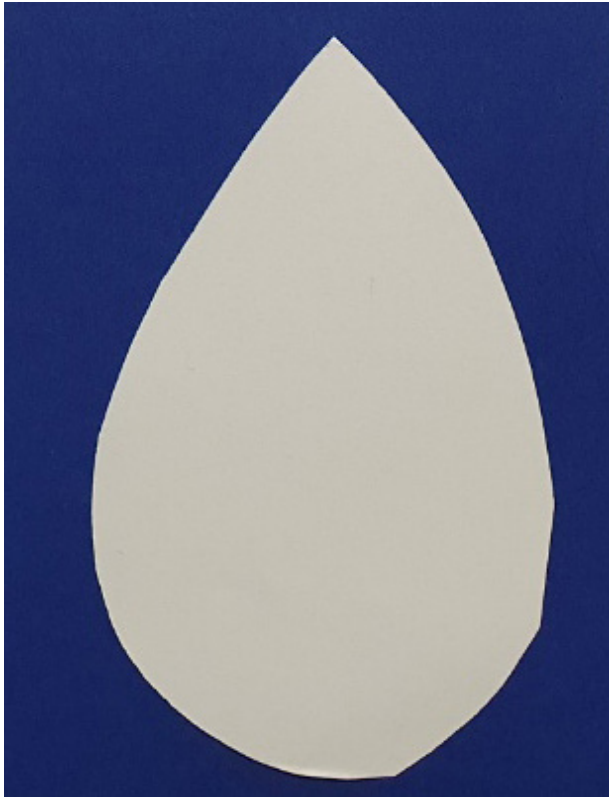
① 연필로 도화지에 눈물 모양을 그린 다음, 눈물 모양 안에 볼펜으로 글을 씁니다.

**선생님께** 글에는 내가 올렸던 상황, 장소, 이유, 그때의 감정 등을 자세히 쓰는 것이 좋습니다. 눈물 모양 종이에 눈물과 관련된 경험으로 시를 써도 좋습니다.

② 다 쓴 다음 가위로 종이를 오려 내고, 연필 선은 지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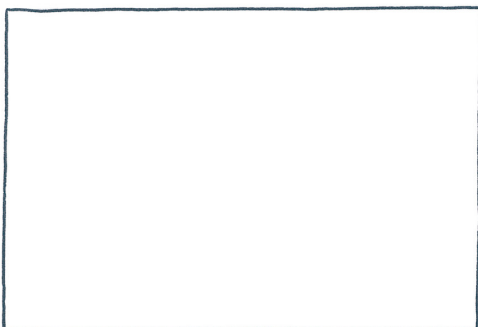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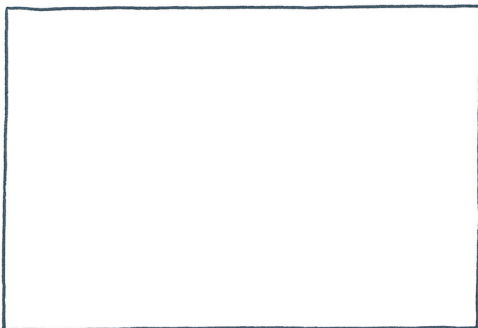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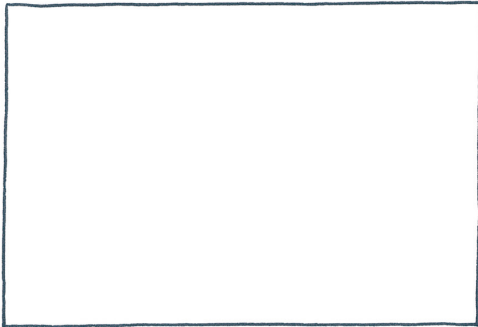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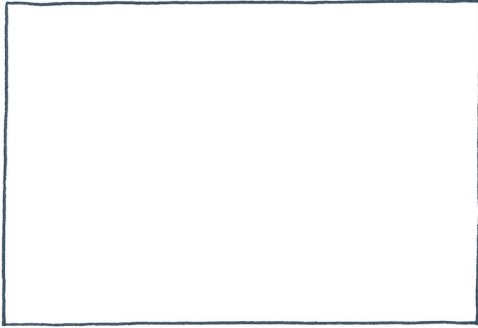
③ 여러 장을 겹쳐서 우리 반 눈물책을 만듭니다. 게시판을 빗방울 콘셉트로 꾸밀 수도 있습니다.

눈물  
박경미  
안그래도 울고  
쉬어서 몰래 울고  
'힘뚱을 했다니 할까?',  
'바람결에 눈에 티가 들어갔다고  
할까?', '실수로 눈을 찔렸다고 할까?'  
이런저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곤  
있었는데, 친구 방에 걸려 2만 2만 하하하  
남이지고 말았다. 참았던 눈물은 콧물과 함께  
쏟아지고 '이 참에 잘 됐다.' 엉엉 소리까지  
내면서 한참을 살것 풀었더니 친구는 그자리에  
그대로 서서 이절 줄 물라하기 위안해 한다.  
한참을 울고 난 나는 속이 아주 시원하다. 친구는  
내가 다쳐서 아픈줄 말고 날 부축하곤 보건실로  
데려다준다. 친구의 부축, 관심, 걱정까지  
반의 내 기쁨은 이제 남아갈  
것 같다. 쿵쾅.  
2021. 1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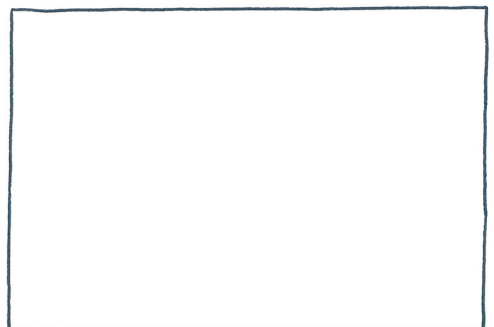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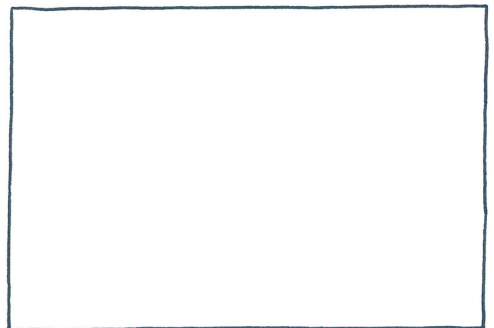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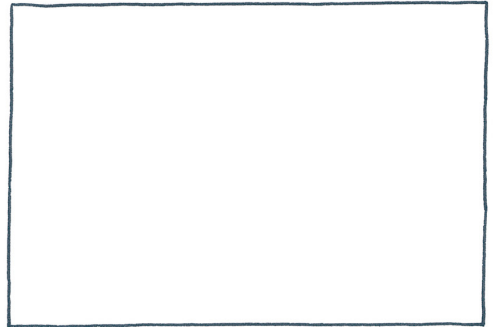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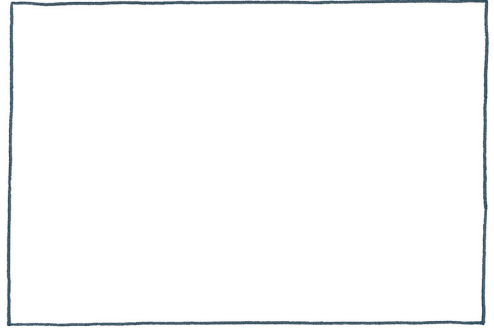


### 3. 만화 일기로 표현하기

도  
제  
의



도  
제  
의





#### 4. 정지 장면으로 표현하기

- 모두 친구들의 울음과 관련된 경험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경험을 정합니다.
- 역할을 나누고 역할을 맡을 사람을 정합니다.
- 되도록 동작을 크게 하여 친구들이 그 상황을 알아맞히도록 합니다.
- 눈물 흘리는 모습은 종이를 찢어서 얼굴에 붙여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사진을 보며 글쓰기나 소감 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 5. 즉흥극으로 표현하기

- 모두 친구들의 울음과 관련된 경험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경험을 가지고 즉흥극을 해 봅니다.  
먼저 가장 인상 깊은 경험을 정합니다.
- 그 경험을 한 친구에게 궁금한 것이 있다면, 질문을 통해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합니다.
- 역할을 나누고 역할을 맡을 사람을 정합니다.
- 대사까지는 미리 정하지 않고, 내가 그 인물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즉흥극으로 표현해 봅니다.
- 다른 모두의 즉흥극을 본 다음, 소감을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